

향기 식물을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서울여자대학교 : 이지선, 조은희, 장매희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Horticultural program used to Aroma Herb

Dept. of Horticulture Science and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Women's Univ.,
Seoul 139-774, Korea

Jisun Lee, Eun-Hee Cho, and Maehee Chiang

실험목적

생활양식의 고급화는 건강, 미용, 여가선용 등 질 높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증대시켰으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에서 오감을 통한 감각적인 욕구 충족으로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향산업 역시 발전하게 되었고, 향식물의 개발과 보급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정정섭, 2000).

후각신경은 12개의 뇌신경(cranial nerves)중에서 유일하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른 감각과는 달리 시상핵(thalamic nuclei)을 거쳐 중개되지 않고 바로 피질로 투사하기 때문에 강력한 자극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errato(1998)는 향이 대뇌의 변연계를 자극하여 혈압, 맥박, 호흡, 기억, 스트레스 반응 등 정신적, 신체적 작용을 조절한다고 하였고, Worwood(1996) 역시 삶의 회상, 주의집중력, 기억훈련 등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을 포함한 식물대용물(과일, 허브)을 중심으로 한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실제 대상아동에게 적용하여 오감발달, 향에 대한 인식 및 회상능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향을 포함한 식물대용물을 중심으로 한 원예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미각과 연결되는 과일과 후각과 연결되는 허브를 각 6회기씩 중심소재로 활용하였다. 이를 기본으로 후각을 중심으로 미각, 촉각, 청각, 시각 등 오감을 고루 자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본 프로그램을 서울 H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생 9명(남: 4명, 여: 5명)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하였다.

본 원예프로그램에서는 매 회기활동이 종료된 뒤 활동과 관련한 글쓰기를 실시하였고(시적글쓰기 및 편지쓰기), 이 글쓰기에 담긴 단어 및 내용을 검토하여 아동의 오감자극 정도와 향인지 및 회상능력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와 함께 활동종료 후 실시된 설문조사지 등을 통해 본 원예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 등을 살펴보았다.

주저자 연락처 E-mail : mhchiang@swu.ac.kr Tel : 02-970-7722

실험결과

(1) 오감발달

과일과 허브를 중심소재로 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글쓰기에 등장한 오감관련 표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오감관련 표현의 빈도수

	과일 소재		허브 소재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시각	57	43	40	30
미각	47	35	30	23
후각	14	11	52	40
촉각	10	7	3	2
청각	5	4	6	5
계	133	100	131	100

과일, 허브소재를 활용한 요리, 미술 등을 접목한 원예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였으나, 과일의 경우 향보다는 시각, 미각적인 자극에 익숙해져 있는 친숙한 소재로 이러한 부분이 글쓰기에도 반영되어 시각, 미각적인 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허브는 생소한 소재로서 이를 느끼는 고정된 감각이 없었기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좀 더 유연하게 다른 감각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더 다양한 표현 가능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2) 대상자의 호응도 및 만족도

총 12회기의 활동이 종료된 뒤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본 활동에 대해 대부분은 흥미를 느끼고 다시 또 하고 싶어함을 드러내고 있어, 본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경험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체험중심의 다양한 경험이 있었기에 글쓰기에 있어 구체적인 표현으로 쉽게 쓸 수 있었음을 통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아동은 흔히 접할 수 있는 과일보다 허브에 더욱 관심을 보이며 호기심과 이에 대해 정립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2. 설문조사 결과

문항	질문	답변
1	과일 및 허브활동이 재미있었나?	매우 재미있었다- 9명(100%)
2	과일 및 허브활동이 글쓰기에 도움이 되었나?	매우 도움되었다- 8명(89%) 조금 도움되었다- 1명(11%)
3	과일과 허브활동 중 어느 것이 더 흥미있었나?	과일- 2명(22%) 허브- 7명(78%)
4	다음에 또 과일 및 허브활동을 하고 싶은가?	네-9명(100%)